

■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중복 보고' 사과 의미와 전망

# “관리책임 잘못”... 사퇴 의사 없어

### 표절 의혹엔 “부끄러울 일 안했다” 부인 野 3당 “제2 황우석 예방 위해 사퇴해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야당 측의 사퇴압력이 더욱 거세지는 등 '논문 표절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확산 일로를 치닫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논문 실적 중복 보고는 사과=김 부총리는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 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정경범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이라고 보다는 ‘관리책임’으로 일정한 선을 그었다. 또 이미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탄 뒤의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약속된 논문실적은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릴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표절의혹은 부인=김 부총리는 이날 사과에

앞서 당초 논란이 됐던 한국행정학회 논문과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표절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신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제 논문은 다르다”며 “박사학위 논문은 회귀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 논문은 인도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위에 관한 집중적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기술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이 틀리고 두 논문의 맥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사퇴 논란=야 3당 모두 일단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측근행기 인사와 인사 검증시스템 고장이 빚은 또 다른 개각 사고”라며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의 표절 논란은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학자로서, 교육부총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가세했다.

그러나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가 기자회견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청와대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김 부총리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김 부총리 자신도 “교육부 수장으로서 비전이나 사업들을 제대로 내놓기도 전에 여러 가지 문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전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논문 실적 이중 보고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로 인해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일을 잘못하고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면 꾸짖어 달라.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시간을 달라”고 말해 교육부총리직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시작통권 환수시기 한미 합의 없어”

### 박진 의원 주장 “美 정부, 개성공단은 위험한 독약”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7일 전시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미간에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의원외교회의 회 결과를 보고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원은 보고에서 “전시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등 전반에 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전시작통권 환수문제와 관련해 미 국방부 내에는 미군간섭 등을 통해 사실상 한미동맹 수준을 하향화하려는 움직임이

다”면서 “전시작통권 환수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해 주일미군 사령부에 배속될 것이라는 미외회 보고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등 전화에서 “우리 정부가 2010-2012년 전시작통권 환수계획을 발표할 때 미 국방부 관계자는 ‘환수시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우리(미국)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

(SPI) 회의에서 2009년을 시점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밖에 “북한이 핵실험을 시도하고 일본까지를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북한의 계좌를 추가로 동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보고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또 한미 FTA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개성공단이 협상을 죽인 다”, “개성공단은 북한군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위험한 독약과 같다”, “개성공단은 건드리기에 위험한 지뢰밭”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자기 목소리 낸다고 한미 공조 안꺼져 개헌 필요성 느껴... 중임제 논의 필요”

한명숙 총리



한명숙 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총리는 27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에 우려가 초래될 경우 미국 정부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이종석 장관 발언’ 파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과 관련, “한미간 공조는 튼튼하게, 그 공간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 하에서 말하는 것이며, 외교문제에 있어 한미 동맹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미국과의 동맹, 튼튼한 공조는 이뤄져야 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 외교안보정책 기조에 우려가 생길 경우 우리는 우리의 실익을 위해 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내에서도

때 건강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 한 총리는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간 불일치 문제,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가는 두 가지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제헌절에 국회의장께서 연구기구를 만들어 연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아무래도 정기국회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전망된다”며 “개헌 주체는 국회로, 총리로서 국회에서 개헌이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한 총리는 “당.정.청 일체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8월부터 한미 FTA 관련 고위당정접담회의를 가동, 상설 점검체제를 마련하겠다”며 “갈등관리자로서 홍보하고 설득하는 역할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내 남편 풀어주세요”

엄앵란씨 호소

유명 배우 출신인 엄앵란씨가 구속돼 있는 남편 강신성일 전 의원을 8·15 특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엄씨는 최근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강 전 의원은 일흔의 나이로 앞으로 날 닮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한나라당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한나라당에 봉사해 왔다”며 특별사면 포함을 부탁했다.

엄씨는 또 “자적이 못미처더라도 아내로서 부탁드린다”면서 “반드시 오는 8월 15일 석방되도록 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

### 靑 “종교지도자 대화 정치적 이용 부적절”

청와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행을 비판했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언급이 한나라당을 통해 알려지자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전날 김 추기경이 강재섭 대표의 연행을 받은 자리에서 노 대통령의 미국 관련 발언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다음 대선은 정권교체 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이날 공식적인 논평 요청에 대해 “종교지도자와의 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변인 논평은 일단 김 추기경을 향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이 대변인을 통해 발언을 작성하고 공개하고 나선데 대해 “정략적인 이용이 아니다”는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청와대 공식 반응은 발언 공개후 김 추기경측이 “비보도를 전제로 평안하게 적당한 내용을 (한나라당이) 자기를 유리한 대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 “일부 신문이 안보불안 부추겨” 청와대 보도행태 비판

청와대가 27일 일부 신문이 남북문제와 한미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

다며, 이들의 보도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무엇이 불안을 부추기는가”라는 제목의 홍보수석실 명의 청와대브리핑 글에서 “민주 정부가 들어서 이후 (정권이) 안보를 정치게임에 이용하는 것은 없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원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직업교사, 원장교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목표와 해결과제를 우선 다뤄주고 정교한 합격전략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규모를 제한 여력이 갖추어져 있고, 비교 우위의 최고 강사진이 전문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본내일 교육학의 교수진은 학부, 석사, 석사학위 취득한 수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써 입증된 최고 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야!”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과내영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마운용 교수	▶ 영어/송우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김지우 교수	▶ 지구과학/박영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종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 FORA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매월 1일, 15일 개강\***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 모두 수강가능

●2개월 종합반 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

-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회원제)
- 정독서실, 고시원 할인 혜택
- 매주 토요일 기조영어특강 수강
- 매일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전용자습실 사용가능
- 사물함 무료사용 가능
- 심화반 신설 맞춤 수강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속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영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정보열 교수

합격의 영광 뒤에는 김재규경찰학원이 있습니다

**FORA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www.police3112.net](http://www.police3112.net)

##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편위 대비)
-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8월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 매일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 ◀◀

# 8월 1일

**오전반** 9:2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을 치른 후 10:10부터 핵심요약정리와 모의시험지 해설강좌를 통해 최종 합격점검을 할 수 있는 강좌임

**야간반** 18:3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 치른 후 19:10부터 문제풀이 해설강좌 진행

"원서접수 받습니다."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http://www.gwangjugosi.com) ☎ 227-8003  
동성 앞 건널목 뒤 / 저씨들 도회역 3번출구

##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대비 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면접**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면접**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2-8008